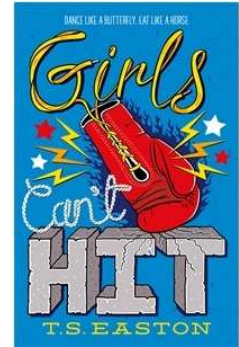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GIRLS CAN'T HIT
가제 : 여자애가 무슨 권투야
저자 : Tom Easton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2015 ‘최우수 국제 청소년 도서(Best International Teen Books)’, CILIP 카네기 메달 후보로 선정된 「남자애들은 뜨개질 안 해(BOYS DON'T KNIT)」의 작가의 신작**
- * 권투의 세계에 뛰어든 열여섯 살 소녀의 유쾌 상쾌한 십대 페미니스트 이야기

특별히 관심 가는 꿈도, 크게 흥미를 느낄 만한 일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온 플로어 워터스.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플로어는 열혈 페미니스트 친구 블라섬의 권유로 난생 처음 권투 클럽을 찾아간다. ‘여자도 얼마든지 권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는 말을 웬지 한 번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지만, 예상대로 클럽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였다. 일단 시작했으니 끝은 보자는 생각에 열심히 따라가보려던 플로어도 혼자 준비운동을 해야 하는 것만으로 이미 관뉘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말았다. 하지만 낯선 권투 글러브를 낀 손으로 샌드백에 어퍼컷을 한 방 날린 순간, 눈이 번쩍하며 마음 속에서 뭔가가 찌릿찌릿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짜릿함을 느낀 것이다. 학교에서, 집에서 숨통이 막힌다고 느끼면서도 꺾꺾 눌러온 감정들이 작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와장창 다 사라지는 속 시원한 기분. 이미 느껴버린 이 충격 혹은 감동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플로어는 권투를 ‘미용체육’ 정도로 하는 대신 제대로 배워보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과잉보호의 아이콘, 지극히 사소한 문제도 본인의 의사를 거스르면 못 견디게 파르르 떠는 엄마가 플로어 앞을 가로 막았다. 여덟 살이 다 되도록 유아들이나 갖고 다니는 위치추적 장치를 갖고 다니게 만들고, 플로어가 몰래 그 지긋지긋한 장치를 연못에 던져버리자 책가방에 경고 등처럼 깜박이는 조명 장치를 달아맨 그런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 플로어가 블라섬과 함께 런던에서 전쟁 반대 시위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무슨 그런 테러리스트 모임에 가려고 하느냐고 할 정도였다. 이런 엄마는 왜 필라테스가 아닌 권투를 하겠다는 건지, 공주 수업에 포함될 법한 운동이나 신체활동 외에 여자애가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정말 손톱

만큼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플로어의 남자친구 조지마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운동량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식욕이 급증한 플로어를 이상하게 생각하질 않나, 점점 근육이 탄탄해지는 몸매도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플로어는 이런 반대 의견에 굴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내 인생이고 내 몸인데 뭐가 어때서?” 학교 친구들 몇몇까지 희한한 취미가 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플로어는 누가 뭐라고 하든, 곳곳하게 복싱 연습에 매진한다. 신기하게도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뽀뽀 조심하고 몸을 사리는 대신 하고 싶은 것에 온 몸을 던져보니 힘이 들고 곳곳이 쑤시는데도 참 행복하다는 생각만 들뿐이었다.

뜻밖의 좋은 변화도 있었다. 운동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아빠와 공통 관심사가 생기고 부녀 사이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다. 같이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고, 자전거 정비도 같이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 변화에 아빠는 너무 기뻐하면서 엄마와 달리 플로어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식욕이 솟는다는 말에 그럼 운동을 줄여보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나 하는 조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과 호응을 아빠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 권투에 매진하면서, 플로어는 무엇이 진정한 싸움인지, 그리고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언제인지 차츰 배워간다.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으로 점철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적 편견을 유쾌하고 매력적인 십대 주인공을 통해 꼬집는 작가의 시리즈 중 하나로, 사뭇 무거운 주제지만 특유의 가벼우면서도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글로 재미와 함께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푼 던지는 이야기다.

<저자 소개>

툼 이스턴(Tom Easton)은 다양한 가명으로 여러 연령층을 위한 책을 써온 작가이다. 청소년 소설 『BOYS DON'T KNIT』 (Hot Key Books)로 CILIP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오르고 2015년 ‘코벤트리 도서 상(Coventry Inspiration Book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THE BAD DECISIONS PLAYLIST

가제 : 실수로 가득한 선곡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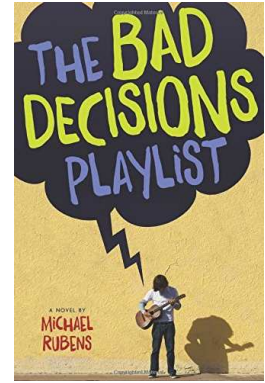
저자 : Michael Rubens

출판사: Clarion Books

발행일: 2016년 8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유쾌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 살고, 사랑하고, 때로는 일을 망치는 허술한 인간의 자화상을 선명하게 그린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 “탄탄하게 구성된 인물들을 통해 성인기로 넘어가기 직전 십대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전하는 이야기”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대마초, 여자, 음악 외에는 만사가 귀찮은 오스틴은 스스로도 게으름뱅이라고 인정하는 열여섯 살 소년이다. 웬만한 일은 귀찮아서 꿈쩍도 하지 않지만 예쁜 여자라도 있으면 거의 ‘무엇이든’ 다 하는 적극성이 빛을 발하는 오스틴은 사실 그 동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수를 무수히 저질러 왔다. 호수에서 선 자세로 노를 저으면서 카누로 건너고 말겠다는 유치한 장난이라든가, 여자아이들 앞에서 만돌린을 연주하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다든가 하는 일들은 그냥 즐거웠던 추억으로 간직하기엔 몸과 마음을 크게 멎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만돌린 연주를 한 날은 하필 학교에서 평소 오스틴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토드와 맞닥뜨리면서 비극을 예감했건만, 비극의 수준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오스틴이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빌린’ 4,000달러짜리 만돌린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진 것이다. 변호사 아니랄까 봐 간간하고 철두철미한 만돌린의 주인공, 어쩌면 새아버지가 될 수 있는 릭은 오스틴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보충수업에서 낙제로 졸업 못할 위기에 처한 수학 성적을 무조건 올릴 것. 만약 정해진 학점을 얻지 못하면 육군사관학교로 갈 것. 두 번째는 릭이 운영하는 토지개발 사업에 무급으로 참여해서 일을 도우면서 만돌린 값을 갚을 것. 오스틴은 그럴지 않아도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릭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지만 저지른 일이 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스틴의 여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오스틴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록인데, 엄마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오스틴이 록 음악에 빠지는 것을 못 견뎌 했다. 특히 오스틴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유명한 록 스타, 세인 터커를 너무 싫어해서 몰래 CD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민감한 반응까지 보일 정도였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엄마의 행동은 어느 날 오스틴 네 대문 앞에 세인 터커가 나타나면서 모두 설명이 됐다. 친 아빠는 저 세상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했던 엄마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그가 오스틴의 친부였다. 엄마가 이를 바둑바둑 갈며 천하의 몃살 사람이었다고 비난했던 친부는 그렇게 홀연히 나타나 그 동안 놓친 세월을 되돌리고 싶어 했다. 다시 오스틴의 엄마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키우

며 살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영웅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스틴은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약속한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아버지와 자주 만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음악을 사랑하지만 자신감은 없고 무대 공포증 때문에 제대로 된 공연 한 번 못해본 오스틴에게 세인은 아버지로서, 록 음악의 대부로서 귀중하고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준다.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자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까진 좋았지만, 오스틴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사실들도 함께 깨닫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헤로인 중독자이고, 약 때문인지 무기력해서인지 중요한 공연 약속도 수시로 핑크를 내는 프로답지 못한 모습들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여름 학기에 만난 영리하고 예쁜 수학 교사, 조세핀과 어떻게든 잘해보려던 계획도 또 실수를 연발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갓아야 할 빛은 많고, 학업도 따라가야 하고, 십수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엄마는 릭과 진지하게 결혼을 계획하면서 오스틴의 하루하루는 조용할 날이 없다. 급기야 사랑이 완전히 실패하고 세인에게 큰 상처를 받은 오스틴은 우울한 마음에 자살을 생각하고, 어차피 끝낼 인생, 마지막으로 한 방 날리자는 생각에 또 다시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릭의 차까지 빌려 오스틴이 밤새 달려간 곳은 뉴욕. 아버지가 핑크 밴 공연에 자신이 대신 서겠다고 나선 오스틴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지원군까지 등장한다. 과연 오스틴은 무대공포증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쌓이기만 하고 해결되지는 않는 문제들은 수습이 될까? 작가는 하도 실수를 많이 저질러 자학적인 말투가 습관이 되어버린 주인공의 위트 가득한 목소리로,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그의 소란스럽고 그래서 친근한 삶을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십대 특유의 반항기,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일에 저돌적으로 덤빌 줄 아는 열정, 그리고 이제 어른으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선 청소년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생생하게 잘 묘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루벤스(Michael Rubens)는 에미 상, 피바디 상(Peabody Award)을 수상한 방송 프로그램 ‘존 스튜워트의 데일리 쇼(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의 전 프로듀서로 현재는 TV 비평가협회 상을 수상한 프로그램 ‘사만다 비와 함께하는 풀프론탈(Full Frontal with Samantha Bee)’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잡지, 신문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하며 작가로도 활동해 왔다. 전작으로는 소설 『The Sheriff of Yrnameer』 (Pantheon), 『Sons of the 613』 (Clarion) 등이 있다.